

‘나-남’의 상황논리에서 본 프라이버시의 한국적 이해

Meaning of Privacy Based on Situational Contingencies of ‘Self-Other’ Concept

김 순 경*
Kim, Soon Kyung
김 종 인**
Kim, Zong In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rivacy within the context of cultural background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dentifying som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esired levels of privacy and the situational contingencies of self-other concept along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vacy control mechanism and the cultural norms.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important dimensions, including

- 1) the traditional values,
- 2) the norms of family life,
- 3) the children education in the household environment,
- 4) the ‘self-other’ concept, and
- 5) the privacy control mechanism.

1. 서

일반적으로 개인차원의 프라이버시의 최적수준은 그가 원하는 수준과 성취된 수준이 일치하는 때로 이해된다(Altman, 1974). 이때 프라이버시 요구수준면에서는 개인적 차이(Wolfe, Laufer, 1974)는 물론 사회문화적 관습 혹은 규범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Rapoport, 1978 cited in Altman,

1974). 프라이버시 성취의 메커니즘에 있어어도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Westin, 1970),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됨을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이러한 본질적 측면을 프라이버시의 수용당사자로서의 주체가 되는 ‘나’와 객체가 되는 ‘남’과의 관계의 형식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주거공간에 한정하여

* 정회원, 계명대 강사

** 자문위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1) 김순경·김종인, 프라이버시적 상황의 해석, 계명대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13-2집,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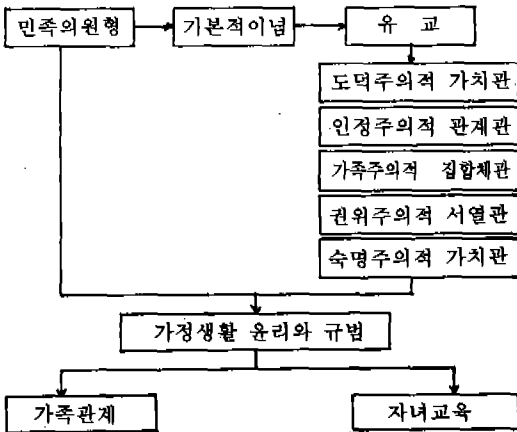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나-남’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의 문제가 주거에서의 프라이버시 이해에 관건이 된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보다 가족이 중시되는 우리전통사회의 문화체계와의 관련에서 ‘나-남’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나-남’관계가 갖는 의미는 우리사회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시하여 ‘나-남’의 관계를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고,

- 1) ‘나-남’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 전통적 생활가치 및 가정생활 규범들을 일별하고, 이러한 이해의 틀에 따라
- 2) ‘나-남’의 상황논리를 우리사회와 서구사회의 입장에서 비교하며, 끝으로 이러한 상황논리의 토대 위에서
- 3)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조절 메카니즘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생활규범

1960년대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그림 1〉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생활규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전통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관련 학문분야에서 더욱 깊이있게 진행되어 그 결과 다양한 가치성향 내지 가치덕목들이 발굴, 제시되기에 이르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중 특별히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해석함에 기준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정생활윤리 및 규범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그림 1).

2-1. 우리민족의 기본 이념

전통 사회에서의 ‘나-남’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고유의 민족정신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문화권이든 한 문화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사회의 가치의식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민족의 원형’ 내지는 ‘집단무의식’이라 한다. 이 원형(민족의 피)은 먼 태고 때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생활감정 및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전자제품을 쓰고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원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원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형되어 그 시대 그 시대의 ‘범 패러다임’(김용운, 1987)을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삶이 겨냥하는 바와 사유와의 관계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삼국사기속에서 최치원이 언급하는 ‘풍류정신’(김형효, 1987 : 유병덕, 1987)이라 하겠는데 이는 우리민족의 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근간이 될 것이며, 강신표(1984)가 조선전통문화의 문법을 음양원리에 입각한 ‘대대적’인 지구구조로 보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겠다. 이를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음양은 중국의 경우처럼 둘로 엄연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라는, ‘비논리적인 논리’(김인희, 1976)를 갖는다. 한국적 사고의 원형적 패턴은 정신과 물질, 형이상과 형이하를 동시에 내재시킨 영육쌍전의 원만한 인간상을 지향(이동준, 1980)하며, 천, 지, 인 3제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혼동되고 융합되기도 하는 의미의 인간관(한승조, 1980)이다. 한국 무가의 가락 속에서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는 존재와 무로 나뉘어지는 양극의 세계가 아니라, 삶이 중복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통합적 사고방식은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나>와 <너>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인간관계와, 내것 네것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인의 소유의식(윤태림, 1986)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내 집> <내 재산> <내 자식>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살림> <우리 자식> <우리 집 사람>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족식사 때 찜계나 김치를 한가운데 놓고 함께 먹는 습관도 결국은 생리화 되어버린 ‘미분화적 삶’(김인회, 1976)의 표현이다. 이같은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도덕주의적 가치관, 인정주의적 관계관, 권위주의적 서열관, 가족주의적 집합체관, 숙명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범 패러다임으로서 가족생활의 규범과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의 성격을 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어진 것이다.

1) 도덕주의적 가치관

서양의 사회가 법의 기초위에서 발달해 왔다면, 한국 사회는 도덕을 바탕으로 하여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김인회, 1976). 우리선조들은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평가에서 도덕적 자질을 우선기준으로 하였으며 명번이나 박학보다 덕행이나 예절을 중시하였다(이상주, 1986). 때문에 구미사회는 <이것이 합법적인가>가 문제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것이 도덕적인가>가 생활의 기준이 된다(손인수, 1980). 그래서 이러한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되면 상놈(unperson)(Crane, 1978)이라는 지적을 받게되고 그집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는 중요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이처럼 의례의 중

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기의 감정과 관계없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손님접대에 상당한 비중을 아끼지 않는 등(Crane, 1978) 자신의 체면유지(최재석, 1983)를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 이광규(1983)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행동기준을 남의 눈에 두는 수치문화(shame culture)라 하였다. 이와같은 한국사회의 도덕주의적 가치관에서는 개성보다 질서 윤리를 강조하므로써 도덕성으로 개성을 제압하는 일이 합리화 될 수 있었다(이동주, 1986). 오늘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부정, 자기겸양이 두드러지며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것(Crane, 1978)으로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것도 이러한 도덕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성때문인지 모른다.

2) 인정주의적 관계관

혈연·지연을 중심으로한 전통적 인간 관계는 인정적 특수주의(김대환, 1980)로서 의리와 우애를 중시하며 가문과 동창생, 동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Crane, 1978). 이들은 모두가 다 ‘한 집안 식구’라는 의식에서 이해관계를 초월한 애정으로 살아 감을 본질로 한다(김태길, 1986). 인정을 앞세우므로써 법외의 정을 갈구하고, 법대로 따지는 사람을 ‘눈물도 없는 인간’(윤태림, 1986)으로 멸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같은 혈연·지연에 소속되는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족 혹은 ‘나’와의 관계정도에 따라 수준별 차등을 두어 받아 들인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다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 설명하는 집단가치의식(한상복, 1980)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유교를 생활윤리로 하는 전통적 한국의 인간관은 가족공동체 내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한승조, 1980)으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생활감정을 공동체의식으로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미분화동체 사회적 성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

되었던 것이다(최재석, 1983).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나'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나'가 아닌 가족공동체에 포함된 부분으로서의 '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적인 생활 경험으로 인하여 가족 각 개인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위축되어 몰개성과 비자주, 거기에다 소극적(김대환, 1980)인 사고방식으로 접철되었으며, '나'와 가족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과 동시에 '나'와 가족사이에 경계라는 개념은 존재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족주의 집합체관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나 타 집단과의 대립에서 생명의 협동을 낳게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 서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지 아니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게도 되었던 것이다(김태길, 1986).

우리의 전통한옥 구조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방어적인 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나 마음껏 휴식을 즐길뿐 일단 대문을 나서면 남을 경계해야하는(윤태림, 1986) 습성이 생긴 것도 이때문이라 이해되는 것이다.

2-2. 가정생활윤리와 규범

1) 가족관계

우리의 전통문화의 특성중 하나를 '관계문화'(이동식, 1980)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규범은 우리민족의 가치관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등 가족성원들간의 관계선이 존재하여왔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족주의를 생활의 방편이자 철학으로 하는 한국전통사회의 가족구조에서는 부자관계가 지배적인 관계선이면서 다른 모든 관계선에게까지 영향을 주게되고 이에 따르는 행동양식이 가족내의 행동양식이 되었던 것이다(이광규, 1981). 이를 슈(Hsu)는 구조(structure)와 내용(cont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Hsu, 1971).

(1) 부-자 관계

전통사회의 가정내 자녀들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은 부모였음에 틀림은 없겠으나 아버지는 엄친이라 할 만큼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다(서봉연, 1984; 이광규, 1981). 이러한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와 자녀관계의 파악은 '효'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즉, 전통적인 부자관계는 '효'를 매개로하는 수직관계의 상하구조로서 아버지는 자식인 자기를 나아준 생명의 은인이요, 자기를 사람답게 만든 교육자요, 자기의 생활근거를 준비하여 준 은인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효'(이광규, 1981; 유영주, 1983)를 생각했던 것이다. 곧, "효는 백행의 근본"이며 공손, 시중, 부양, 안락등의 생활윤리기준²⁾이 되었던 것이다(최재석; 1964, 1983). 이러한 효도의 원리에서 볼때 개인의 주장은 전통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만이 윗사람을 위하는 길이며 동시에 자기집단의 발전과 질서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유년시절부터 교육받아 왔던 것이다(최재석, 1983) 이와같은 부-자 관계의 행동규범은 형제관계³⁾, 자매관계의 행위유형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2) 부-부 관계

부자관계에 종속되는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한마디로 '불평등한 관계'(한남제,

2) 예컨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행위규범면에서는 "문에 들어갈 때 앞에서지 않으며, 방에서는 다리를 오므리고, 누웠으면 일어나 앉는다. 아버지와 겸상하였을때 수저를 먼저 들지 않고 식사가 끝나면 수저를 밥그릇위에 놓았다가 아버지가 수저를 내린 다음에야 상을 놓는다. 특히 아버지가 술잔을 주면 공손히 받아 마시되 옆으로 돌리고 잔을 한 손으로 가린다"는 등의 행위를 볼 수 있다(이광규, 1981).

3) 예컨대, "아우는 년장자인 형에게 존경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형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한 형은 아우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이광규, 1981)는 것이 그러하며 이러한 형과 아우와의 보호 순종관계는 연령차가 많을수록 중대하여 간다는 것이다.

1986)였다. 즉, 남편은 처를 통제하고 처는 남편의 통제에 공손히 복종하는 것이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가치이념(최재석, 1964)이었던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부부는 애정을 토대로 자유의 사에 의해 결합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애정표시를 하고 애정이 지속하는 한 평화로울 수 있는데 비해(Hsu, 1971)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표시가 있을 수 없고 설사 부부중심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처럼 밖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최재석, 1983).

부부의 언어도 직접적이지 못하고 ‘어린이와 관계’를 통한 표현을 사용하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마치 남인양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등의 여유는 더더욱 없었다(이광규, 1983).

2) 자녀교육

가족구조의 속성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의 하나는 육아양식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부부중심 사회에서의 자녀는 부부의 사랑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때 출산을 하며, 부모와 자녀관계는 따라서 이차적인 것으로 된다. 서구사회에서는 어린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개인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무리 어렵도 독방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광규, 1983). 그러나 부자중심의 우리전통가족사회에서 자녀는 가문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임무에 따라 출산되며, 부모들은 효의 기반위에서 부는 자에 대하여 권위로 임하고 자는 부에 대하여 복종한다는 주종관계가 엄존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독자적인 세계는 인정되지 않고 항상 환경과의 조화, 어른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정윤리⁴⁾(이광규, 1983)에 종속되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릴때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고 매사에 부모의 지시나 명령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식은 항상 부모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그 뜻을 받들어야 하므로 행동의 기준도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최재석, 1983).

가옥구조를 보더라도 전통한옥의 가옥은 아버지의 방인 ‘사랑방’과 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안방’이 있을 뿐이고(최재석, 1983) 아동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전용의 방은 없었다. 설령 방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갓난 아이에게는 독방을 주지않았다.

이들 아동들은 3세대 또는 4세대 가족속에서 생활하면서 인생의 전과정을 어렵뜻이나마 끌고루 맛볼 수 있는등 대인관계가 편중되지 않아 정서적인 면에서는 평형과 안정을 얻기도 하였던 것(서봉연, 1982)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른들과 섞여 살므로해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일관된 생활체계를 갖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이광규, 1981).

이러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족집단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유기조차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모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자신들에게 의존해주시기를 바라며 자녀들의 독립이나 자립에 대해 반감을 가질 정도로 되기도 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기도(김재은, 1974)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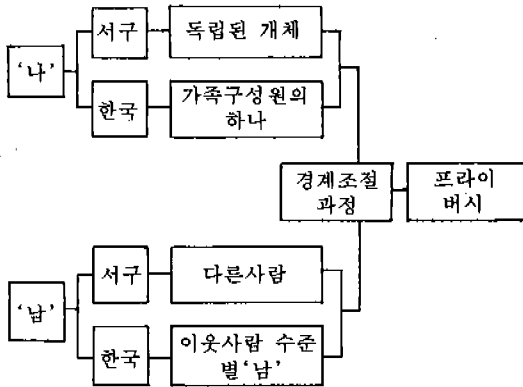
2-3. ‘나(self)-남(other)’의 상황논리

환경심리학에서는 최근에 프라이버시를 ‘나(self)’와 ‘남(other)’ 사이의 경계(boundary)를 조절(control) 해가는 하나의 행동적 현상으로 정의하고(S.T. Margulis, 1974)있다. 즉, ‘남’에게 ‘나’를 어느만큼 노출(self-revelation)시키고 어느만큼 차단(self-reserve)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자기가 원하는 최적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과정으로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려는 경향(Altman, 1976)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최적수

4) 이광규(1983)는 이를 근거로 서구인들을 “Ego oriented people, Individual oriented people”이라고 하고 우리민족을 “Situation oriented people”이라 하여 대비시키고 있다.

준 상태란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성취된 수준이 일치하는 순간을 말하며 만일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넘어버리게 되면 과밀감이나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Altman, 1974)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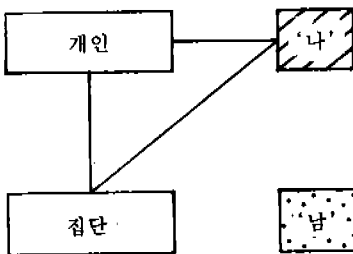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최적수준의 프라이버시 이해의 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남'의 개념적 범주로 본 서구사회와 우리 전통사회와의 차이이다. 즉, 가족주의가 중심이 된 우리 전통사회와 개인주의가 중심이 되는 서구사회에서의 '나-남'관계를 개인-집단과의 관련면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그림 2).



〈그림 2〉 '나-남'의 개념범주와 프라이버시

1) '나'의 개념

개인과 집단과의 관련면에서 '나'는 〈그림 3〉에서 처럼 두 경우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그림 3〉 '나'개념의 '개인-집단'관계

(1) 집단으로서의 '나'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사고방식에서 '나'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나'가 아닌 가족공동체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나'이므로 해서 하나의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이동준, 1980). 자기본위 대신 오로지 집단본위, 공동체본위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자기부정, 자기물각적 사고방식에서 '나'라는 관념은 극히 희박하며(윤태립, 1986) 좀체 '나'를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를 꺼리며 '나'의 존재를 밝히지 않음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게까지 되었다. 이것은 나의 이름을 밝히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실례라고 보는 것(Crane, 1978)과도 상통한다. 이와 같이 개전일체 내지 미분화적인 사고방식(김인회, 1976)에서는 '나'와 '전체'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었고(이동준, 1980) '나'와 '너'는 대립적 긴장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는 개별적 존재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특히 가족)에서의 미분화된 생활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통한국사회에서는 집단만이 존재하고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곧, 개인생활의 영역은 거의 없고 언제나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만이 그 존재가 명확하여 개인은 그 속에 파묻혀 그의 존재가 애매했다(최재석, 1983)고 할 수 있다. '나'의 행동은 곧 우리가족, 우리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므로 '나'의 행동적 자유에는 구속이 따르고 가족이나 부모가 '나'를 간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시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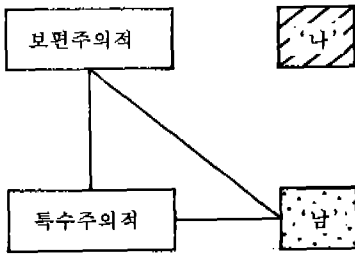
(2) 집단속 개인으로서의 '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사회에서의 '나'는 부모의 종속물이라기 보다는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의 '나'는 가족과도 분리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써 항상 '나'가 주체이고 '너'는 '나'의 관찰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나 '나'는 '너'로부터 '너'는 '나'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며, '나'와 '너'

는 주객으로 분리되어 긴장대립의 관계를 보인다. 나를 제일 강조하므로 해서 그들의 언어에도 항상 주객이 나오고 특히 ‘나’가 강조되는것(김인희, 1976)이다.

2) ‘남’의 개념

‘남’이라고 할때도 <그림 4>에서 처럼 두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사회에서 이해되는 ‘남’은 보편주의적 시각에 바탕한 것이며, 우리전통 사회에서는 특수주의적 시각에 바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림 4> ‘남’개념의 ‘보편-특수’관계

그런데, 이러한 조절메커니즘은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인 것이 아니다(Westin, 1970). 즉, 어떤 문화권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컨트롤 메커니즘으로 물리적 환경요인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대신 비언어적 혹은 언어적인 행동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예컨대, 일본사회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물리적인 상징(physical symbols)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Geertz, cited in Westin, 1970), 대신 다른사람으로부터의 경계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쓴다. 이들 사회에서는 사람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억제하거나, 자기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며, 예의와 공손을 매우 중시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므로써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견지하고자 한다. 영국인들의 경우, 좁게 개인의 집부공간을 갖지 않으며 장소에 대한 독점소유권도 거의 갖지 않지만(Hall, 1966), 사람들간에는 암묵적

태도를 통해 프라이버시에 접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등 폭넓은 비언어적 행동 메커니즘을 동원한다(Altman, 1976). 멕시코인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수준은 프라이버시의 향유에 만족할수 없는 정도이지만 대신 가급적 남의 집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거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는 밖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가족식사때는 식사공간에 인접한 화장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규범에 따라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Lewis, cited in Altman, 1976).

(1) 특수주의로 본 ‘남’

우리 전통사회에서 ‘남’은 서구에 비해 제한적인 개념이었다. ‘나’와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은 이를 ‘우리’라는 집단의 범주로 이해하여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의 상황은 거개의 경우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특수한 ‘친소구별의식’(최재석, 1983)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과 친척은 물론 심지어 친구나 동료까지도 ‘남’으로 남아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남’이 말그대로 ‘나’와는 전혀 무관한 ‘모르는 사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특수주의적 인간관계(김경동, 1983)라 하며 이는 행위규범에 따라 정해지는 것(최재석, 1983)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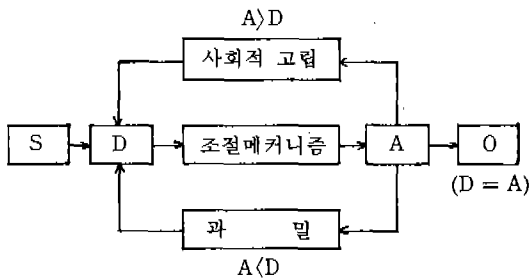
(2) 보편주의로 본 ‘남’

이와 대조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남’을 이해하므로 해서 ‘나’이외의 모든 사람(non-self)은 개인의 자격으로 ‘남’이 되는 것이며 이들은 모두가 ‘침해자(invader), 침입자(intruder)’(Altman, 1976)가 되고 이 범주에는 물론 가족까지가 포함되어 모든 ‘남’은 동등한 보편적 수준에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2-4. 프라이버시조절 메커니즘의 전개

전통적으로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이해는 출입문이나 창문의 개폐, 가구배치, 각실배치 및 개구부위치 설정같은 물리적 환경요인에 주로 의존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와서는 이에 추가하여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환경적 행동, 문화적 규범이나 관습같은 비물리적 프라이버시조절의 행동적 메커니즘이 지적되고 있다(Altman, 1976; Westin, 1970; Pastalan, 1970; Proshansky, 1974). 이같은 물리적·비물리적 측면을 기능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물리적·비물리적(행동)메커니즘은 각기 독립된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당초에 원하던 수준과 성취된 결과의 관계 성향(=, >, <)에 역동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합적인 피드백 시스템(Altman, 1976)으로 이해된다(그림 5).



A: achieved privacy
 D: desired privacy
 O: optimum
 S: standing pattern of behavior

〈그림 5〉 프라이버시조절 메커니즘;
 Altman, 1975

프라이버시가 갖는 이러한 측면 곧,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앞의 기능적측면과 구분하여 상황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나 가치관에 바탕한 프라이버시조절 메커니즘이 응답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서구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2-5. 상황적 해석에의 접근⁵⁾

그러면 프라이버시와의 관련면에서 우리의 전통

사회나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공간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라이버시적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구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 주거공간에서 프라이버시적 상황은 우선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집안식구들이 사용하는 방문에는 물리적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헛기침이나 발자국 소리등을 내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유교적인 윤리규범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방문을 잠근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이해되는 프라이버시의 본질적인 개념에 충실할 경우, 어떤 방이든지 닫혀진 경우 그 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크를 하고 재실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가족생활 규범상 한 가족내에서 또는 적어도 부모·자식·형제기간이라면 오히려 노크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이며, 설령 부모가 아이들 방문을 불쑥 열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방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너무 밀폐되거나 봉쇄되지 않고 어느정도까지는 개방이 되어 있어서 부모나 형제들이 지나다가(예컨대, 방안에서 너무 큰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할때), 불쑥 문을 열고 한 마디 할 수 있는 정도가 허용되는 접근 가능한 이해영역이 심리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허용하는 프라이버시적 상황의 영역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하는 프라이버시적 상황의 영역이 있으므로 해서 폐쇄 일변도의 서구적 프라이버시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내방'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동생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이며, 가족행사때는 비워줄 수도 있는 '내방'이기도 한 것이다.

5) 김순경·김종인, 앞 논문, 1990, p. 16.

즉, 현대계에서 개인으로서 ‘나’(개아)는 존중되어야하나 독존으로서가 아닌 공존의 형태로서 부모와 형제와 가족의 상태가 함께 고려된 ‘나’가 수용되는 프라이버시 상황의 발견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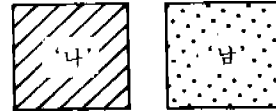
2-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나-남’관계의 상황논리적 해석에 비추어 서양과의 비교면에서 조명하였다. 이것은 물론 길게는 시간적 변인위에서 보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이해의 기본은 비단 장소적 상황논리 뿐 아니라 시간적 논리도(근대화와의 관련면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거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생활규범과 공간 이용형태등을 시간의 축상에서 어느기간의 조사를 축적하므로써 주거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이해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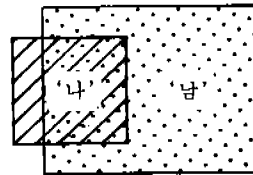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리민족의 원형이자 집단무의식이라고 할 ‘풍류정신’은 음양원리에 입각한 대대적인 지구구조로 이해되고 이러한 통합적 사고의 경향은 ‘나’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조장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 2)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도덕주의적 가치관, 인정주의적 서열관, 가족주의적 집합체관등의 전통적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범 패러다임으로 되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규범이나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의 성격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 3) 따라서 전통적으로 가족관계는 부자관계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가족내의 인간관계는 이에 종속되었으며, 부부관계 역시 부자관계에 종속되는 ‘부부유별’의 윤리에 의한 상하수직구조의 불평등한 관계였다.

- 4)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장유유서’, ‘남녀유별’의 윤리의식이 지배적이었으며 독립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보다는 어른과의 조화가 강조되었다.
- 5) ‘나’보다는 가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나-남’관계의 범주는 ‘나’와의 친소관계정도에 따라 설정되는 부분적 종속관계로서, 개인중심주의적이며, ‘나’와 ‘남’이 대등한 독립적 관계로 존재하는 서구사회에와는 구별되는 것이다(그림 6).



〈서구; 대등한 독립관계〉



〈한국; 부분적 종속관계〉

〈그림 6〉 ‘나-남’관계의 비교

- 6) 프라이버시 조절메커니즘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환경적 행동, 및 문화적 규범과 관습등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모든사회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개인적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의 유교적 생활규범이나 비교적 잘 발달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볼때 물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서구에서와는 다른 척도가 필요하디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신표, 전통적 생활양식의 구조, 동원 김홍배 박사 교회 기념 논문집, 외국어대, 1984.
2. 김경동, 한국사회 특성고, 동원 김홍배 박사 교회 기념 논문집, 외국어대, 1981.
3. 김대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과 시민윤리,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 김재은, 한국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이대한국문화연구원논문총 10집, 1967.
5. 김용운, 한국인의 자연관과 과학사상, 한국의 기층문화, 한길사, 1987.
6. 김용운, 한·일 민족의 원형, 평민사, 1987.
7. 김인희·김순효,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한국문화와 교육, 이대출판부, 1976.
8. 김태길,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1986.
9. 김형효, 고대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철학적 사유, 한국철학사 상권, 한국철학회편, 1987.
10. 박용현, 전통적·민주적·근대적 가치관의 조화 모색, 민주문화 논총(민주아카데미), 창간호, 1990. 5.
11. 송인수,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의식과 현대교육의 재문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2. 윤병덕, 통일신라시대의 풍류사상, 한국철학사 상권, 한국철학회편, 1987.
13. 유승국, 한국전통문화와 가치수용, 강원대 교양특강1, 강원대 출판부, 1983.
14.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4.
15. 윤태림, 한국인, 현암사, 1986.
16.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 구조(1), 조선일보사, 1983.
17.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1), 조선일보사, 1984.
18. 이광규, 가족구조와 윤리, 강원대 교양특강1, 강원대 출판부, 1983.
19. 이광규, 한국기층문화의 구조원리와 대립론, 동방사상논고, 1986.
20.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1.
21. 이동준, 전통적 가치관의 현대적 고찰,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2. 이항녕, 한국의 전통사상과 국민의식,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 여름.
23.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제와 시각 15, 1986.
24. 임희섭, 젊은세대의 가치관, 강원대 교양특강 1, 강원대 출판부, 1983.
25.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83.
26. 한남재, 가족가치관의 변화,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 출판부, 1986.
27. 한상복,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국의 민족문화 그 전통과 현대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8. 한승조,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 민주주의,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9. Altman, I., Privacy; A conceptual analysis, E & B, Mar., 1976.
30. Altman, I., Privacy; A conceptual analysis, Edra 5, 1974.
31. Chermayeff, S., & Alexander, N.Y., Community and privacy, N.Y., Doubleday, 1963.
32. Crane, P.S., Korean patterns, Kwangin publishing co., 1978.
33.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N.Y., Doubleday, 1966.
34. Hsu, F.L.K., Structure, Function, Content and Process, American anthropologist 61, 1959; cited by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81.
35. Laufer, R., Proshansky, H., & Wolfe, M., Some analytic dimensions of privacy, J. of so-

- cial issues, 33, 1977.
36. Lewis, O., Five families, 1959, cited by Altman, I., Privacy; A conceptual analysis, E & B, Mar., 1976.
 37. Margulis, S.T., Preface to privacy, Edra 5, 1974.
 38. Margulis, S.T., Privacy as behavioral phenomenon; coming of age, Edra 5, 1974.
 39. Pastalan, L.A., Privacy as a behavioral concept, Social science, 45(2), 1970.
 40. Proshansky, H., Ittelson, W.H., & Rivlin, L.G.(eds.), Enviroment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41. Rapoport, A., Some perspective on human use and organization of space, 1972, cited by I. Altman, Privacy; A conceptual analysis, Edra 5, 1974.
 42. Sommer, R., Personal space, Englewood cliffs, N.Y., Prentis Hall, 1969.
 43. Westin, A., Privacy and freedom, N.Y., Atheneum press, 1970.
 44. Wolfe, M., Laufer, R., The concept of privac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ra 5, 1974.

